

# DATABASE 월드 뉴스 (국내)

Database World News(Domestic)

## DATABASE 링크

### 데이콤 (천리안)

국내 최대 정보, 국가별 기업정보 KOMPASS를 소개해 준다.

국가별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KOMPASS 기업정보」는 정보대상 국가를 추가하여 총 41개국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정보는 회사명, 주소, 상품명, 상품분류코드 등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KOMPASS 기업정보(GO KOMPASS), 천리안 TOP 메뉴 12번 '기업' 부문 6번 '국가별기업정보'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국가별 기업정보 제공 대표전화 대표 사업 정보 등 한국, 아르헨티나, 헝가리, 러시아, 노르웨이, 독일, 멕시코 등 총 41개국 기업정보를 제공한다. (제공업체: 콤파스 코리아)

〈서울지역〉 14.4K 시범 서비스 실시-9월 14일 20시부터!!

\*9월 14일 저녁 8시부터 서울지역 14.4Kbps 시범 서비스 제공!

9월 14일 저녁 8시부터 14.4Kbps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있다. 서울지역 14.4Kbps 고속모뎀 사용자는 220-2003번으로 접속하면 14.4Kbps 고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4.4K 시범 서비스를 이용하고 접속에 대한 이용소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편지로 알려주면 14.4K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 1. 서울지역 14.4Kbps 시범서비스 안내

○ 시범서비스 일시

- '94. 9. 14(수). 20:00

○ 접속번호 : 220-2003

#### 2. 14.4Kbps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접수 안내

○ 통신장애 문의(GO SOS)

천리안 TOP 메뉴 99번 '천리안 길잡이' 의 13번 '제안·문의·신고' 부문 13번 '통신장애 문의' 선택

\*14.4Kbps 증속작업을 위해 접속중단이 되었던 220-2000번은 14일 저녁 7시부터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0-2000번은 9월 30일까지는 2400 bps (V.42bis 지원)입니다.

## 홈뱅킹 서비스 - 사무실과 안방에서 만나는 하나은행!!

### \*PC 하나로 서비스 - 하나은행 홈뱅킹!!

잔액조회, 자기앞수표, 자금 이체 등의 은행업무를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홈뱅킹 서비스, 새롭게 하나은행 홈뱅킹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바쁜 현대생활의 동반자가 될 하나은행 홈뱅킹 서비스를 통해 생활의 여유를 느껴보기 바란다.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하나은행 홈뱅킹(GO HNB) 천리안 TOP 메뉴 9번 '홈뱅킹' 부문 44번 '하나은행 홈뱅킹'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조회서비스(예금, 대출·할인어음, 하나비자카드, 수출, 수입, 내국신용장, 자금이체서비스) 각종안내(환율, 상품, 하나은행 점포 등) 등이다. (제공업체: 하나은행)

### “대법원” 정보서비스 개시

“대법원”에서 천리안을 통해 소송절차, 법원 제출 서류 양식, 법원·등기소·순회심판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천리안 “대법원” 서비스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여러가지 법원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주제토론실”이 마련되어 있어 하나의 주제를 놓고 폭넓은 토론을 진행 할 수도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대법원(GO SCOURT) 천리안 TOP 메뉴 20번 “국민의 소리”의 110번 ‘대법원’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소송절차, 법원제출 서류 양식, 법원·등기소·순회심판소 관할 및 소재지 정보 대법원장에 바란다·주제토론장·법원홍보실 등이다. (제공업체: 법원행정처)

## 컴퓨터로 보는 책, 스크린북 서비스 제공

“스크린 북”이란 일반 서점에서 구입하는 책 내용을 그대로 컴퓨터 파일로 옮긴 것으로써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책을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스크린 북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책을 전송(다운로드)받으면 되는데 일반 서점 구입가 보다 훨씬 싼 가격에 책을 받아들 수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스크린북서점(GO SB) 천리안 TOP 메뉴8번 ‘교육·문화·취업’ 부문 33번 ‘스크린북서점’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소설, 컨설팅 계간지, 수필, 시 등의 단행본 책자를 컴퓨터 파일로 제작하여 제공. 원래 책 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 내용의 전문을 받아들 수 있다. (제공업체: 엔터프라이즈 글든칩)

## 한국PC통신 (HITEL)

### 한국자료정보사 부동산정보 개시

한국자료정보사가 오랜 시범 서비스 기간을 마감하고 9월 16일부터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정식서비스를 시작한다. 주요정보는 부동산 뉴스, 상담사례, 분양정보, 경기동향, 투자분석, 용어해설, 매물정보, 실무교실 등이며 일반인도 넓은 안목으로 부동산 동향을 전망할 수 있도록 전문정보를 알기쉽게 정리하였다. 특히 한국자료정보사만이 수년간 독보적으로 출간하고 있는 전국 개발계획정보가 각 시·도, 군, 구별로 도시계획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초기화면에서 [4. 생활·문화 3. 부동산·

회원권]의 순으로 선택하거나 (2) 하이텔 어느 화면에서나 “go kdic”를 입력하면 된다.

### 고려 수지침요법 서비스 개설

국내 수지침의 원산인 “고려수지침학회”에서 고려수지침요법(go sooji)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려수지침요법은 기존 한의학에서 이루어져 왔던 몸에다 침을 놓는 체침원리와는 달리 손바닥의 어느 한 부위에 침술을 행함으로써 치료 및 건강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이미 국내외에 30만 회원을 확보, 그 효험을 입증하고 있다. 고려수지침요법 서비스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정확한 원리이해와 전달을 위해 1,000여장에 달하는 그림 화면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학회에서 제공하는 학회지 및 용어사전과 함께 질의·응답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려수지침 정보를 이용하시려면 하이텔 어디서나 “GO SOOJI”를 입력하거나, “초기화면 4. 생활·문화 4. 건강·의학 21. 고려수지침학회”를 선택하면 된다.

### 세무정보 민원서류 서식제공 개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에서 민원서류 신청서식을 제공합니다.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통신을 통하여 납세완납 증명, 사업자 등록증명 등 민원서류 신청서식을 볼 수 있다. ‘r’ 이나 ‘dn’으로 원하는 서식을 출력하여 신청서를 작성.서명 또는 날인한 후 반신용 우표를 동봉하여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으로 보내준다. 민원서류 신청서식을 보려면 ‘GO NTAX’를 입력하거나, 4. 생활·문화 14. 세무·법률 1. 국세청 세무정보 7. 우편민원안내 및 서식제공을 선택하거나, 혹은 17. 공공정보 53. 세무정보 7. 우편민원안내 및 서

식제공을 선택하면 된다.

### 국가안전기획부 본격 서비스 제공

지난 8월 18일부터 시험운영 되어온 국가안전기획부의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안전기획부와 함께”라는 명칭으로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는 그 동안 우리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생각되지만 했던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안전기획부와 함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안기부의 기본업무인 국가안보를 위한 대공홍보자료와 철저한 신분보장 속에 이루어지는 하이텔을 통한 대공신고접수, 안기부에 바라는 글을 올릴 수 있는 제안코너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자유게시판, 토론실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취업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취업안내 서비스는 하이텔 초기화면 “5. 교육·취업(ANKIBU1)”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하이텔의 “국가안전기획부와 함께”를 이용하려면 하이텔 서비스 어디서나 “GO ANKIBU”를 입력하거나 “초기화면 12. 여론광장 12. 국가안전기획부와 함께” 또한 취업정보는 “초기화면 5. 교육·취업 4. 취업 12. 국가안전기획부 인력관리실”을 선택 이용할 수도 있다.

### 일본 G-Search Database, 서비스 개시

일본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중의 하나인 G-Search가 하이텔을 통해 제공된다. G-Search는 후지쓰와 평화정보센터 등이 출자해 3년 전에 설립한 전문 Database회사인 G-Search사의 중

합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하이텔 호스트와 일본 G-Search사의 호스트를 국제패킷망으로 연결, 서비스되고있다. G-Search에서 제공하는 주요 데이터베이스는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신문 등 23종의 신문뉴스를 비롯해 96만사의 기업정보, 50만사 주요 임직원의 이력정보, 잡지, 도서, 산업, 앙케이트, 마케팅리서치, CD, 비디오, 숙박, 법률, 원자력, 제약, 반도체, 중국산업정보 등 1천여 파일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이다. 이들 정보 중 아사히와 마이니치의 신문기사와 18만사의 기업정보는 영문으로도 서비스되고 47개국 1만 2,000사의 기업재무정보를 담고 있는 Cfarbase도 함께 제공된다. G-Search 데이터베이스 요금은 가입비의 경우 7만원(60% 할인 금액)을 당분간 적용하고 이용료는 각 정보별로 분당 30엔에서 1500엔까지 부과되는 종량제로 운영되며 월 기본사용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기업정보와 신문정보등의 경우에는 검색시간이 아닌 검색건수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므로 실질검색시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되는 합리적인 서비스이다. 가입비는 매뉴얼대금으로서 가입 초기 1회에 한하여 청구되며 사용요금은 2개월 후에 하이텔 기본이용요금과는 별도로, 지로로 청구된다. G-Search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면 일본어를 지원하는 에뮬레이터(수퍼세션 등)를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나 하이콤 등의 에뮬레이터는 이용할 수 없다. 무료이용교육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 2시~4시까지 하이텔 교육장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교육희망자는 IP개발부 담당자(전화:02-513-2118, HiTEL ID:ipdept)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초기화면에서 [18.영문·해외DB 12.G-Search]의 순으로 선택하거나 (2)하이텔 어느 화면에서나 "go gsh"를 입력하면 됩니다.

## 〈에이텔〉 POS-SERVE

### 서울신문사의 시사주간지 〈뉴스피플〉 서비스 개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사항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생생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일간지에서 얻을 수 없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기사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포스서브의 뉴스피플을 찾으십시오. 서울신문사에서 제공하는 주간지 뉴스피플은 다양하고 깊이있는 기사내용으로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 3. 서비스 내용

- 메뉴위치: TOP 메뉴중 11. 뉴스·스포츠·기상 16. 뉴스피플
- 서비스 메뉴

〈뉴스 피플〉 NEWSP 서울신문사(02-735-7111)

1. 정치·사회
2. 경 제
- 3. 문 화
4. 국 제
5. 인물·칼럼
6. 연 예
7. 취미·오락
10. 시간대별 검색

이 서비스는 정보이용시 30원/분이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입니다.

## 연예계의 핫이슈를 전해드리는 <연예TV가이드> 서비스 개시

현대사회에서 아직까지 TV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미디어는 없다. TV를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생활에 깊숙히 또 은밀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포스서브를 통해 그 TV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방송 각부문의 인기베스트, 방송 영화계의 연예 관련 모든 화제거리와 영화와 비디오평까지 최근의 대중매체속의 핫이슈를 전해 준다. 또한 이번 주의 TV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하여 중요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시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 제공되는 포스서브의 <연예 TV가이드>! 관심있는 회원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 3. 서비스 내용

- 메뉴 위치: TOP 메뉴중 12. 여행·문화·가정 → 8. 연예 TV가이드
- GO 명령어: GO TALENT
- 서비스 메뉴

<연예 TV가이드> TALENT	서울신문사(02-735-7711)
[이달의 인기 베스트]	[금주의 연예소식]
1. 탤런트/드라마 베스트	11. 방송계 화제
2. 가수/가요베스트	12. 가요계 화제
3. 희극인/개그코너 베스트	13. 영화계 화제
	14. 스타의 스케줄, 팬클럽소식

### [인기 연예인 인명사전]

- |            |               |
|------------|---------------|
| 4. 탤런트     | 15. TV영화평     |
| 5. 가수      | 16. 불안한 비디오   |
| 6. 영화배우    | 17. 남궁설민 스타미학 |
| 7. 희극인     | 18. 해외연예      |
| 8. 스타백과 사전 | 20. 주간 TV프로그램 |

이 서비스는 정보이용시 30원/분이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 '스프린트네트' 서비스 제공

포철의 출자회사인 에이텔은 최근 세계 최대의 데이터통신망서비스업체인 미스프린트사와 '스프린트네트' 제공계약을 맺고 국제 VAN(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스프린트네트는 아시아, 유럽, 미주등 세계 42개국 3백여개의 액세스(접속)센터를 연결한 글로벌통신망으로 데이터통신망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약 22%를 점유하고 있다. 에이텔은 이달 초 스프린트네트를 이용한 국제전자사서함(E-MAIL)시작한데 이어 오는 10월중 EDI(전자문서교환)등 국제 VAN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나우콤

### 야구정보 서비스 제공개시

나우콤(대표 강창훈)이 자사의 PC통신서비스인 '나우누리' (구명칭 K3)를 통해 야구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나우콤은 최근 MBC야구해설위원인 허구연씨가 운영하는 데이벨과 정보제공계약을 맺고 '허구연의 프로야구 24시'라는 야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프로야구위원회의 경기속보등도 아울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구시즌 때면 경기장을 찾거나 TV에 매달리는 야구애호가들이 시간때문에 관전하지 못할 경우에도 경기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게 됐다. 또 각종 통계정보와 경기전후 해설로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온라인 질의응답과 퀴즈 등을 통해 야구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게 됐다.

'나우누리' 서비스는 서울(접속번호 : 592-5000, 5001), 부산(635-7008), 대전(828-6030), 대구(429-6543), 광주(228-2030)등 전국 5대도시 에서는 1만4천4백bps급의 고속통신으로 접속할 수 있다. 기타 지역이나 기존의 2천4백bps급 저속통신을 할 경우는 하이네트-P망(01410번)에 들어가 16번을 선택하면 나우누리 서비스와 연결된다.

## 국정뉴스

### 체신부

### 초고속망 국제협력서 주도적 역할 (윤체신, 세계체신장관회의 연설서 강조)

운동윤체신부장관은 일본 교토 미야코호텔에서 열린 세계체신장관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윤장관은 이날 '21세기 정보통신망'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최근 많은 국가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인류 공동의 미래자산으로서 궁극적으로 전세계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장관은 "이를 위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표준화활동과 개발지원 활동을 강화해 국가간-지역간 통신의 표준화, 기반구조의 격차 해소, 기술수준의 격차완화에 노력해야 하며 한국은 이 같은 ITU활동에 적극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또 오는 2015년까지 45조원을 투자해 추진키로 한 우리나라의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사업을 소개했으며 미국, 일본, EU(유럽 연합), 싱가포르에서도 각각 비슷한 정보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세계체신장관회의는 교토에서 개막된 ITU 전권위원회에 참석중인 각국 체신장관을 대상으로 일본정부가 주선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윤장관은 오데이 순 일본우정장관과 별도로 회담을 갖고 양국이 초고속망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양측 실무자들이 만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토록 했다.

## '96년부터 우체국 국제송금 온라인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국제송금업무가 온라인화 돼 오는 '96년부터는 일본, 미국, 유럽국가와 보다 빠르고 싸게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 서울에서 개최중인 UPU(만국어편연합)총회를 계기로 유럽지역체신금융기관들의 국제자금결제망인 '유로지로'망 가입을 적극 추진, 내년초 가입을 정식신청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유로지로망은 일반 은행간 국제정보통신망인 스위프트(SWIFT)망에 대응해 유럽국가 체신금융기관들이 연합해 구축, 지난 '93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자금이체망으로 현재 유럽 15개국과 일본등 16개국이 가입해 있다. 체신부는 이번 UPU 서울총회에서 체신금융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 우정청들이 유로지로망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내년초 가입을 신청, 오는 96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과 기 처

### 초고속정보화전담반 자문회의

정부의 '초고속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구성에 따라 과기처는 연구개발전담반을 조직한데 이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문위원과 분과별 전문위원을 확정하고 9일 오전 과기처 상황실에서 제1차 자문위원회의를 가졌다. 한영성과기처차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문현시스템공학연구소장, 박찬모포항공대교수 등 16명의 자문위원들은 정보산업계 원로인 박교수를 자문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과기처의 초고속 정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기술개발사업은 모든 부처에서 활용하게 될 응용시스템의 공통핵심소프트웨어 기술선정, 체계적인 개발 및 보급 등으로 자원의 낭비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골격을 잡아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들은 이에 따라 행정 및 공공분야, 산업분야와 일반국민들을 위한 응용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공통핵심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 및 보급전략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멀티미디어 응용기술, 번역·통역기술, 분산병렬기술, 지식기반 기술 등 공통핵심기술 개발 계획의 추진 길전문분야별 과학기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개발과 표준화 체제의 정비, 과학기술정보 유통망 및 종합서비스체제 구축 길국제기술협력 및 첨단기술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국제전산망 개발, 과학전문 VAN(부가가치통신망) 구축, 서비스 체계 개발, 초고속 슈퍼컴퓨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과기처는 시스템공학연구소에 의뢰한 연구기획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중순 1차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한후 내년 2월께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계획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공 공 뉴 스

### 한국통신, 팩스정보서비스 금년말 전국 확대

PC나 팩시밀리, 전화기를 이용해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정보를 팩시밀리로 받아보는 팩스정보서비스의 제공지역이 금년말 전국으로 확대된

다. 또 제공되는 팩스정보(DB·데이터베이스)의 수도 현재의 5개에서 연말에는 교통지도정보, 기상정보등 10개가 추가되고 오는 '97년까지 모두 45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통신은 서울지역 시험서비스를 거쳐 작년 12월부터 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등 5개지역에서 시범제공해온 팩스정보서비스를 오는 12월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중 상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제공정보수도 금년말까지 TV 프로그램안내정보, 공연장안내정보, 중고품매매정보, 법률정보, 기상정보, 의학정보, 취업정보, 신문속보, 교통지도정보, 항공정보등 10개정보를 추가, 모두 15개로 확대키로 했다.

이어 내년에는 일반생활관련 정보 5개를 자체 개발하고 민간 정보제공자의 정보 5개를 수용하는등 '97년까지 연간 10개씩 추가 하고 접속회선수도 금년말 69회선에서 연차적으로 증설해 '97년에는 2천회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제공되는 팩스정보는 \*증권정보(제공자 대우증권) 31종 \*철도여행정보(철도청) 12종 \*관광정보(한국관광공사) 5백 85종 \*입찰정보(입찰통신사) 1백 26종 \*학습정보(종로학원) 51종 등 모두 5개 데이터베이스 8백 5종이다.

팩스정보서비스는 도면·도형·사진·한자등이 포함된 정보를 이미지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으면 이용자가 PC·팩스·전화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선택, 팩스로 수신하게 된다. 전화를 이용할 때는 700-1000번을 다이얼링한 후 안내음성에 따라 해당정보코드를 누른 후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되며 팩스이용시에는 역시 700-1000번으로 외 지난 4월 조사된 단말기별 월간 이용량은 전화 8만 2천건(42%), 팩스 7만 2천건(37%), PC 4만건(21%)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3만 5천여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통신, 주문형비디오 7개분야 프로그램 확정

한국통신은 오는 10월 5일부터 서울 반포에서 제공하게 되는 주문형 비디오(VOD)서비스용으로 교육, 영화, 영상반주 등 7개분야의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우선 제공하게 될 프로는 교육 63편, 영화 15편, 드라마 10편, 교양 2편, 스포츠 3편, 여행 2편, 영상반주(노래방)5백곡등 모두 1백시간 분량이다. 교육프로의 경우 어린이 생활영어, 일본어, 고교수학, 국어연구, 만화 등이며 스포츠는 골프, 볼링, 테니스경기, 영상반주는 가요, 가곡 동요, 팝송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통신은 이 프로를 3~6개월마다 한번씩 새로운 것으로 바꿀 계획이다. 주문형 비디오서비스는 전화국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각종 영상을 전화선에 연결된 TV로 채널을 선택하듯 원하는 프로를 선택시청할 수 있는 첨단 통신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 원하는 프로를 시청하려면 우선 TV를 켜고 채널을 3번이나 4번에 맞춘 다음 VOD 전용 리모컨으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작동시키면 TV화면에 VCR을 보듯 시청할 수 있는 프로가 나열된다. 시청자는 TV화면에 나타난 프로의 번호를 리모컨으로 선택하면 3초 내에 영상이 TV화면에 나타난다. 물론 시청 중에 VCR처럼 빨리 돌리기, 정지, 되감기 등을 할 수 있다.

## 한국통신, 내년부터 데이터베이스사용료 통합고지 계획

한국통신(대표 조백제)은 컴퓨터 데이터통신망과 연결되는 각종정보의 사용료를 전화료와 함께 받는 통합요금고지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전화번호 '01410'으로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사용료를 정보제공업체를 대신하여 전화요금과 함께 일괄 수금하는



이같은 정보요금 회수대행으로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요금금지제가 실시되면 정보제공 업체들의 서비스 현금화가 용이해지고 사용자들도 개별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일 수있는 반면 사용자 분쟁 등 유사시 에도 사용자가 전화료만 따로 낼 수없는 문제가 따르게 된다.

### 한국통신·삼성, 모스크바 시내전화사업 추진

-MLTN사와 합작회사설립 합의 10만회선 규모-

한국통신과 삼성전자가 러시아의 모스크바시와 인근지역의 시내전화사업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체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과 삼성전자는 모스크바시 통신운영회사(MLTN)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스크바 및 인근지역의 통신운영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국내 2개사와 MLTN은 이같은 합의에 따라 합작회사설립시 한국측 49%, MLTN 51%의 지분으로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현재 러시아 체신부에 국산전전자교환기(TDX)의 모스크바 설치승인을 신청중이다. 협력사업규모는 전화 10만회선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업지역은 추후 결정기로 했다. 한국통신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부터 MLTN과 실무협의를 시작, 금년 1월 모스크바에서 사업협력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들 양사의 모스크바 합작회사설립이 성사될 경우 국내업체의 러시아 통신서비스 시장진출은 데이콤 및 금성정보통신의 나훗카진출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데이콤과 금성정보통신은 지난 4월 나훗카 시내

통신회사와 합작해 연해주지역에서 시내전화사업을 운영기로 하고 오는 12월 사업개시를 목표로 현재 통신망구축등 준비작업중인데 이 사업에는 데이콤이 45%, 금성정보통신이 5%를 출자했다.

### 시스템공학연구소, 韓-EU 네트워크 개통기념 세미나

시스템공학연구소(소장 金文鉉)는 대덕단지내 연구소 강당에서한·EU 연구개발 네트워크 개통 기념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길 KREONet와 EuropaNET 서비스(尹基松·시스템공학연구소연구원) ▲ 전산망을 이용한 국제공동협력(존 밀보른·포항공대) ▲ 유럽에서의 도서정보서비스(金炳千·한국과학기술원교수) ▲ 유럽에서의 정보통신 현황 및 서비스(金泰卿·데이콤부장)가 발표된다.

### 특허청, 국내외 특허관련 자료 검색시스템개발 착수

특허청은 최근 올년말 완성목표로 국내, 일본의 특허, 실용신안관련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검색시스템개발에 착수했다. 총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이번 사업은 PC, 전산단말기등을 통해 특허자료 등을 찾아 볼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키워드 검색방식과 윈도우즈방식을 통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이번 시스템개발작업이 끝나는대로 지난해 개발된 영문검색시스템과 통합작업을 벌인뒤 '98년까지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국내외자료의 입력을 할 계획이다.

## 정보산업연합회

### “텔리포트 건설 조기추진 필요”

“텔리포트”건설이 범정부적인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사전 조정을 거쳐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건의가 나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12일 일본 동경에서 압해 도시로 건설중인 “동경 텔리포트타운과 미래정보도시형 소프트웨어 생산기지”계획 및 건설현황 조사, 발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 텔리포트 개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산업연합회는 최근 국내에서도 영종도 신공항건설, 부산 광역권개발, 서울의 5개권 개발계획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텔리포트건설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산업연합회는 또 동경 텔리포트타운의 경우 기본구상에서 개발착수까지 5년이 걸리고 건설기간도 10년 이상 걸리는등 오랜 시일을 필요로 하는 텔리포트건설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동경 텔리포트타운은 동경 도심에서 약 6km 떨어진 동경항중앙 아오미, 남아리아케, 북아리아케, 다이바지구등 4개지구 4백 48만평방m의 매립지에 2003년까지 조성될 국제정보거점 도시. 4조엔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동경텔리포트는 '86년 제2차 동경도 장기계획에 따라 '88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 현재 도시기반공사를 마치고 핵심시설에 대한 건설이 한창 진행중이다. 동경 텔리포트 건설의 핵심은 동경 도심과 텔리포

트타운을 연결하는 레인보우다리, 현재 건설중인 텔리콤센타, 동경국제전시장, 압해 고속철도와 기존의 철도, 도로, 해상운송시스템등을 연결하는 신운송체제를 갖추는데 있다. 중심지역인 아오미지구에는 초대형 안테나를 갖춘 높이 1백m 인텔리콤센터빌딩을 비롯 정보산업,미디어기업, 금융기관 및 외국기업들이 입주하는 인텔리전트 빌딩들이 들어차 24시간 정보가 수, 발신되는 정보거점이 조성된다.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제도 정비 시급”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기간을 현행 “창작후 50년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간”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가 과학기술처에 제출한 “UR/TRIPs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 보호제도 정비를 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타결로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UR/TRIPs (지적재산권의 통상측면)협정문 내용에 맞춰 프로그램 저작권보호와 관련,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프로그램 보호기간을 저작자사후 50년간으로 하더라도 최근 라이프 사이클이 단기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속성상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사적 복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에 한정하고 이용자 스스로 복제할 경우 개인 소유 PC를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하는등 그 한계를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미국이 통상압력 차원에서 프로그램보호법의 친고죄

조항 폐지요구에 대해 저작권 보호제도는 개인적 차원의 권리보호에 목적이 있고 법이론상 상고 없이도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주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역파일링을 통해 프로그램을 해석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포스데이타는 현재의 연구소를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통신연구소로 키우기위해 5백여명의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는등 총 3천4백억원을 투자해 멀티미디어 요소기술, 휴대용단말기(PDA), 공장용 종합단말기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포스데이타는 또 포한공대 정보통신대학원에 1년 기간의 POSDATA 상설과정을 신설,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 일반뉴스

### 포스데이타, 2천5년 매출 5조원 목표

포스데이타(대표 성기중)는 2005년까지 매출 규모 2조원, 시스템 통합(SI)전문인력 7천6백명을 확보해 세계 20대 SI업체로 발전한다는 내용의 청사진을 확정 발표했다. 포스데이타의 이번 장기비전은 지난 7월 포항제철이 포스그룹 5대 전략기업으로 신세기통신, 포스텔, 포스트레이드, POSEC와 함께 포스데이타를 선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포스데이타는 사업부문을 SI 부문, OA(사무자동화)부문, 정보통신부문으로 나누고 SI부문에서 7천억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한 OA부문에서 1조원, 정보통신부문에서 3천억원의 매출액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포스데이타는 특히 SI분야에서 특화전략을 채택, 포스데이타의 강점인 CIM(컴퓨터통합 생산 시스템) 부문과 철강 SI부문에서 각각 국내 1위, 세계1위 업체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스데이타는 국내외 철철기업 및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의

### 현대그룹, 정보통신 전산시스템 대폭 강화

현대그룹(회장 정세영)이 정보화시대에 대응, 그룹 각사의 전산실과 그동안 계열사별로 분산추진해온 정보통신, 자동화사업을 지난해 설립한 현대정보기술에 통합, 정보통신 및 전산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그룹의 정보화사업을 전담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현대정보기술(대표 김택호)은 창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사업준비를 마치고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창립1주년 기념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나섰다. 현대정보기술은 지난해 현대전자의 정보통신 및 자동화사업과 합작법인인 현대 한국알렌브레들리의 공장자동화부문을 인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건설, 중공업 등 20여개 그룹사의 전산실 인원 및 장비를 통합, 그룹의 전산업무 지원과 함께 정보통신사업에 본격 참여할 계획이다.

현대정보기술은 산업별 시범모델을 구축, SI(시스템인테그레이션)사업에 참여하고 시스템 통합관리, 부가가치통신망·근거리통신망을 비롯한 정보통신, 공장자동화·인텔리전트빌딩 등 자동화사업을 전개하고 이를위해 신기술개발과 인

력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정보시스템시장에는 삼성그룹의 삼성데이터시스템, 럭키금성그룹의 에스티엠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이번에 현대가 가세함으로써 그룹차원의 한판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 삼성의료원 성형외과 진료관리 시스템 수주

—병원에 처음으로 구축, 효율적인 환자 관리에  
신기원 이룩—

미원정보기술(주)(대표 朴泰成)은 최근 삼성의료원의 “진료관리 시스템”을 수주하였다. 미원정보기술은 멀티미디어 이미지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베이스(DB) 검색기능을 구축하여 진료능률의 극대화, 진료의 신뢰성 증대,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처음으로 구축되는 이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이미지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의 수술부위 촬영 필름과 초진, 경과, 수술, 퇴원 기록카드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이를 검색할 수 있어 병원에서 원하는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 및 효율적인 환자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는 성형 수술할 신체부위를 영상을 통해 원하는 모습으로 마음대로 재현하여 수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진료 및 업무 능률의 극대화, 첨단 의료환경 제공, 의료 서비스 향상 및 진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타병원 성형외과 의료시설 환경변화에도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원정보기술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삼성의료원의 지방개원시에 이 시스템이 확대설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름 및 사진 등 이미지 자료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관공서, 언론사 대기업 산하의 디자인 작업실, 광고회사 등을 대상으로 이미지 자료관리 시스템, 성형외과 진료관리 시스템 및 포토(Photo)CD 시스템 등 멀티미디어 사업분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CA Korea와 한국엠제이엘 Ingres 및 MANMAN의 국내 사업정책 확정

1994년 9월 7일(서울에서) ASK Group을 합병한 Computer Associates (CA)는 ASK Group이 한국엠제이엘(주)을 통해 국내 사업을 해 오던 잉그레스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와 MANMAN 제조업체통합관리 시스템의 향후 국내 사업정책을 확정 시켰다. 일그레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인 첨단 위치를 선도해 왔으며, 내무부 시군구 전산화 사업에 핵심 데이터 베이스로 쓰이고 있고, 아주대학병원의 분산처리 관리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등 사업성패관건(mission-critical)이 되는 중요한 응용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국내에 약 200이상의 사이트를 갖고 있다. MANMAN은 전세계 3,500여 사이트에서 성공적으로 쓰이고 있는 제조업체통합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도 이미 성공적으로 구현한 타과웨어, 레고코리아등의 실적을 갖고 있고, 최근 UNIX 플

랫폼으로된 오픈 솔루션을 뒤후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컴퓨터어소시에이트의 국내 활동으로 인하여 잉그레스와 맨맨에 대한 CA의 국내 영업부문 참여여부를 놓고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컴퓨터어소시에이트의 이영주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89년 이래 잉그레스를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지원체제를 갖고 있는 한국엠제이젤이 계속해서 독점 공급할 것으로 사업정책이 결정되었고, CA KOREA는 한국엠제이젤의 마케팅과 기술지원을 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ASK Group과 한국엠제이젤의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이 계약에 따라 앞으로 다년간 한국엠제이젤에 국내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고 사업성과 여하에 따라 계속해서 공급권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MANMAN 또한 한국엠제이젤이 공급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엠제이젤(주)의 대표이사 임만직 박사는 CA가 합병전 기존의 한국엠제이젤과의 계약을 계속 준수한다는 결정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세계 제 2위의 큰회사로서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재확인시킨 합리적 처사입니다. CA의 기존의 아성은 IBM 메인프레임과 PC분야에, 이번 UNIX 중심의 중간층의 잉그레스 데이터베이스와 입증된 좋은 솔루션 패키지인 맨맨을 첨가한 것은, 최근 전산에서 클라이언트/서버로 신경영체제를 구축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잘 맞는 좋은 사업 전략으로 봅니다. 따라서, 잉그레스나 맨맨이 전산 시스템 규모적절화(Rightsizing)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것입니다. 회사규모, 재력, 기술, 고객지원체제등 각 분야에서 어느 경쟁업체보다 못지 않은 CA의 협력에 많은 기

대를 갖고 있으며, 한국엠제이젤은 클라이언트/서버 해결책 제공에 고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CA는 전세계 30여개국에 100여개 지사 30여개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8,000여명의 직원을 갖고 있어 '93년 회계연도 기준 21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 제 2위의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ASK Group인수에 따른 UNIX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장 참여로 인하여 컴퓨터어소시에이트가 갖고 있는 전세계적인 영업망, 다년간 다져온 고객만족 지원체제 등을 통하여 이부분에 대한 매출액 향상을 기대 하고 있다.

한국엠제이젤주식회사는 1988년 설립한 이래 컴퓨터와 정보통신에 관련된 최첨단 기술분야 사업을 해오고 있다. 주로 미국의 첨단 기술회사와 유대를 갖고하는 사업의 분야에는 잉그레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MANMAN 제조업체통합 관리시스템, Centigram의 음성통신, IBM과 HP의 데이터 저장에 관련된 주변기기 및 데이터 저장 통합 해결책, ALTERA의 프로그램가능형 직접회로 논리설계소자, VIEWlogic의 ASCII 설계 프로그램등이다. 부설기술연구소에서는 이들 첨단기술이 한국에 적용되게 하는 기술 연구 개발을 하며, 대표적인 개발업적으로는 잉그레스 관계형데이터베이스를 소스 코드에서 시작하여 국산주전산기인 타이컴 컴퓨터에 직접 한글화와 포팅을 하여 내무부 시군구 전산화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들수 있다. DB